

탄핵안 가결 후 첫 집회...“尹, 민주주의 명령 따르라”

광주시민 등 1천500여명 5·18광장서 7차 총궐기대회 눈발 속 목도리·장갑 무장...‘윤 체포·헌재 인용’ 등 촉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맞은 주말 광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17곳이 참여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지난 21일 오후 3시30분께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1천500여명이 모인 이번 대회는 ‘파면하고 해체하고 처벌하 락(樂)’을 주제로 ▲사전행사 ▲공연 ▲시민 발언 ▲공연2 ▲비상행동 대표자 발언 ▲현수막 및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눈이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패딩, 장갑, 목도리 등으로 중무장(?)한 채 ‘윤석열 탄핵·체포’, ‘헌재 조속 인용’

등이 적힌 팻말을 흔들며 윤 대통령의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인용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주변으로 설치된 천막에서는 핫팩, 커피, 가래떡 등의 나눔이 이뤄졌다.

발언에 나선 김준서 광주고 학생회장은 “국회의 헌법적 절차를 통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으며, 이는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결단이고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탄핵안에 거부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를 무시하고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법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의 의지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 명령에 따라 즉각 소환에 응해야 하며 계엄을 옹호하는 특정 의원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처음 맞은 주말인 지난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제7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려 광주시민 등 1천500여명이 ‘윤석열 탄핵·체포’, ‘헌재 조속 인용’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예리 기자

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병식 광주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은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관련 서류 모두를 거부하고 온갖 핑계와 궤변을 늘어놓

며 농성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당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국민의힘의 본질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이

들 역시 윤 대통령과 윤영을 함께 하는 내란 동조당이므로 위한 정당 심판을 통해 해산시키고 수사 당국은 내란 수괴와 부역자, 잔당들을 신속하게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내란범죄자 윤석열, 내란세력 국민의힘’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가위로 찢는 퍼포먼스가 이어졌으며, 오후 5시18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흘러나오자 시민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인 채 목숨을 한 뒤 궐기대회를 마쳤다.

광주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마다 윤 대통령 처벌 등을 촉구하며 궐기대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광주 외에도 전주, 울산, 대구, 제주, 대전, 부산, 충북 등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가 열렸으며, ‘윤석열정권퇴진강원운동본부’는 오후 3시에 강릉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권 원내대표 사무실 인근 도로에서 강원도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뿐 아니라 권 대표 권한대행의 국회의원직 사퇴 및 국민의힘 해체도 촉구했다. /주성학 기자

4·3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74년만에 ‘무죄’

광주지법, 재심서 선고...재심 개시·관할권 두고 검찰 항고해 장기화

제주 4·3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이 처음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에 따르면 제주 4·3 피해자 고(故) 한상용(2017년 사망)씨에 대한 최근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1949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남로당원을 도왔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체포돼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소한 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의 아내가 물질 등으로 3남매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꾸렸다.

한씨의 가족들도 연좌제와 사찰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겪었다.

한씨는 평소 고문 등 트라우마 때문에 4·3 피해에 대한 언급을 꺼렸고, 유족들도 제주 4·3 희생자 신청 절차를 잘 몰라 정식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재심 개시를 요청했다.

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 총 2천530명 중 1천479명이 제주지법 제주4·3사

건전담재판부 등에서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올해 8월 기준)받았으나,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피해자’는 한씨가 처음이어서 4·3 재심의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한씨의 유족은 뒤늦게 4·3 희생자 신청을 해 재심 개시 결정 이후인 지난 8월 4·3 희생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2023년 재심 개시 결정 제주지법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그동안의 4·3 관련 조사나 연구 결과를 볼 때 한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유족의 진술 청취와 다른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4·3 위원회 희생자 결정 심사에 준하는 객관적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항고했고, 재판도 제주가 아닌 광주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검찰 항고에 법원은 한씨의 재심 관할 법원을 광주라고 판단했다.

광주에서 열린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면서, 한씨는 4·3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은 지 7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안재영 기자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재판서 “내게도 책임”

檢, ‘선거법 위반’ 벌금 400만원 구형...선고 공판 내년 2월7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자신의 의원직이 달린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계책임자에게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관위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국회의원 임기 전이었지만, 민주당 법률위원장 활동을 하느라 세부 내용을 살피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 의원 신분으로 국가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7일 열린다. /안재영 기자

전북대 총출 후 도주운전자추적 중

광주의 한 사거리에서 전북대를 들이받은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전 5시40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사거리 인도로 시동이 켜진 차량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과 인근 전북대의 총출 흔적을 발견했다. 이 사고로 일부 도로 시설물이 훼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를 확인했으나 휴대전화기가 꺼져 있어 가족과의 연락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재영 기자

‘여수 소재지구 개발 비리’ 정기명 시장 입건

여수시 소재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

사2대 등에 따르면 소재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기명 여수시장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여수시 간부급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브로커 2명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재지구 택지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여수 시청과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수사 대상자 일부는 최근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업 특혜 의혹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구체적인 혐의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